

美 “韓·日·EU도 中 기술 도둑질 피해 국가”

무역대표부 비방 보고서 내 무역전쟁 동맹국 연대 타진

미중 정상담판 타협 기대 찬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을 비방하는 보고서를 전격 발간해 타협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의 패배가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에서도 확인된다는 동맹국들과의 무역 전쟁 연대를 타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보고서를 20일(현지시간) 전격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전략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에도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보를 보유한 호주국립대에 대한 해킹, 일본 기업들 피싱,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 집중된 자동차 영업비밀 스파이,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사도 등이 그 사례로 적시됐다.

USTR은 호주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우려해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배제했고, 일본도 두 업체를 정보체계를 설립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비행이 다른 국가, 특히 미국의 안보 동맹국에 끼치는 영향을 따로 적시한 것은 대중 무역 전쟁에서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 전쟁 전세를 고려해 동맹국들에 대한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계획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태도 불변을 강조하려고 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 이버 공격, 불법 산업정보수집 사건, 중국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

요,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인허가 차별 등이 추가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 전쟁의 근본 이유와 같듯이 ‘기술 도둑질’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이날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앞서 USTR은 올해 3월 말에 발간한 1차 보고서에서 200여쪽에 걸쳐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전략을 다룬 바 있다.

그 뒤 미국은 보고서에 적시된 불공정 관행을 명분으로 2500억 달러(약 283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 학교 교실에 욕일기 한국 학생 “전쟁범죄 상기” 항의에 철거

캐나다 밴쿠버 근교의 한 중고일관교(중고교 과정이 함께 설치된 학교)가 역사 교재라며 교실 벽에 욕일기를 붙여놨다가 한국 학생들의 항의에 철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상기시키는 욕일기를 교실 벽에 붙여 놓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들어갔다.

서명을 주도한 한국 학생은 욕일기를 교재로 사용하는 역사 수업을 듣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교실에 욕일기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주말부터 친구들과 함께 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그 결과 지난 19일까지 약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에 현지 교육위원회는 교실 벽에 붙어있던 욕일기를 철거했다.

그러면서 “욕일기는 20세기 역사를 배우기 위한 교재로 붙여놓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욕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욕일기를 ‘전범기’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이 욕일기를 달고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려다 우리측의 이의 제기로 불참할 일도 있다. /연합뉴스

中 시속 250km 고속철용 해저터널 만든다

저장성 철도당국 건설계획 발표 고속철도 굴기를 선언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중국이 최고 시속 25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 전용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철도당국은 상하이 동남쪽 저장성 닝보에서 저우산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 철도 구간에 중국 최초로 고속철용 해저터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저장성 철도 당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논의됐으며, 이미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총 길이 77km에 달하는 저우산-닝보 고속철도 노선은 최고 시속 250km로 설계되며, 이 노선에는 16km에 달하는 해저터널 구간도 포함됐다.

해저터널 구간은 닝보 베이루에서 저우산 전방을 직선거리로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또 이번 프로젝트 전체 77km 중 철도가 깔리는 길이는 71km이며, 전 구간에 7개의 역이 들어선다. 4개역은 신설하고, 3개역은 기존역사 단장한다.

이 철도의 주요 목적은 고속철도 운항이지만, 일반 철도도 병렬식으로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철도 당국은 이 노선의 주요 용도는 일반 승객 운송이 아니라 관광객 운송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적한 악재에 아시아 주가 하락세 지속

미국에 이어 악재가 쌓인 아시아 증시에서도 주요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5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일본 증시의 닛케이 225지수는 전날보다 0.93% 하락했고 토픽스도 1.14% 내렸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닛케이 에너지 부문이 3% 이상 떨어지는 등 하락률이 가장 높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98%, 항셱지수는 각각 1.33% 하락으로 출발했다. 항셱지수에서 에너지 부문은 3.39%, 정보기술(IT)은 1.96% 떨어졌다.

대만 지휘안 지수는 같은 시각 0.84% 내렸다. 에너지 부문이 2.61%, IT는 1.07% 떨어졌다.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1.27%, 1.6% 각각 떨어졌다. /연합뉴스

호주 S&P/ASX 200지수는 1.01% 하락해 전날보다 낙폭이 커졌다.

아시아 증시는 전날 주요 기술주와 에너지주 중심의 미국 증시 주가 지수가 하락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 전망, 무역 전쟁,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성장 둔화, 미국 기술기업 성장 우려 등 쌓인 악재가 복합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몬지 소이치로 다이와 SB투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악재가 산적해) 글로벌 위험 회피를 이끄는 단 하나의 요인을 짚어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애를 실적이나 무역갈등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모든 우려에 대해 이들 탓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컵만 115개 인니 해변서 발견된 고래 뱃속에 6kg 쓰레기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컵 115개를 비롯해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몸길이가 9.5m에 달하는 이 고래는 지난 19일 오후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 안의 카포타섬 해변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섬 주민들이 둘러싸고 살을 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국립공원 측이 급히 출동해 사인 조사를 했다.

향유고래인 이 고래의 위장에서는 115개의 플라스틱 컵(750g)이 외에도 하드 플라스틱 19개(140g), 플라스틱병 4개(150g), 생선 2개(270g), 플라스틱백 25개(260g), 나일론 가방 1개, 기타 플라스틱 1천여개가 나왔다. 고래 뱃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이미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뱃속의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죽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세계자연기금(WWF) 인도네시아본부의 해양생물보존 담당자인 드위 수프라프티는 이에 대해 “사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격한 사실은 정말로 끔찍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닛산(日産)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64)을 자사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 허위 기재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전했다. 이날 요코하미의 닛산자동차 본사에 기자들이 모여든 모습. /연합뉴스

곤 닛산차 회장 체포... 르노-닛산 앞 날 ‘시계제로’

“경영통합 추진 일정 연기 반발” 양사 주도권 싸움 치열한 수싸움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회장이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에 체포되면서 닛산과 르노 연합의 항배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의 회장은 물론 프랑스 르노의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을 맡으며 ‘르노-닛산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일본 정부는 곤 회장의 체포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양사 간 갈등설, 일본 경영진 반란 등의 시나리오가 확산하

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성명을 내고 “프랑스와 일본 간 산업협력의 가장 위대한 상징 중 하나인 르노와 닛산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양사간, 나아가 양국 간에는 닛산-르노 연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곤 회장의 전격 체포는 그가 프랑스 정부와 함께 르노와 닛산의 경영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보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닛산차 내에서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곤 회장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측 경영진 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르노는 닛산에 43.4%, 닛산은 르노에 15%를 각각 출자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 따라 닛산이 가진 르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닛산 측에서는 경영통합시 르노에 경영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매출은 지분 상황과는 반대다.

지난 19일 기준 시가총액은 닛산이 4조 2439억엔(약 42조6000억엔)으로 르노의 174억6500만유로(약 22조4000억엔)의 배에 가깝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